

윤석열 “추미애 장관 부하 아니다” 민주당 “그러면 옷 벗고 정치하라”

윤석열 대검 국정감사 출석 ... 추미애 장관과 갈등 계속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작심 발언을 거듭하며 쏟아냈다.

윤 총장은 우선 ‘검사 술 절대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가족·측근 비위 의혹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곧바로 수용했던 이를 전에 비해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임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였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국감 직전 터져나온 라임 사건 수사책임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도 현장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윤 총장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 검사장의 사퇴 글을 인용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무부가 사실상 대검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런 식의 인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지난 1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함에 대해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의 소극적 수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위는 각각 지난 5월 7일과 21일 직접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 걸쳐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대형 금융사기법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올분을 빨리 못 풀어드린 점은 사과 한다”고만 답했다. 그의 답변은 추 장관이 지적한 라임 사건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비껴갔다는 점에서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연이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아권 정치인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왔다.

한편,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김중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년여 전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며 “그때 이 자리에서 저는 총장을 믿고 개혁적인 수장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소한 말이지만 청문회 때 윤석열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싸우러 나오신 것 같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8일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제기하는 윤 총장 의혹을 ‘정치 공세’라 주장하며 엄중한 바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었다. 그는 청문회 도중 윤 총장의 과거 발언을 영상으로 상영한 뒤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정치 행위를 할 거면 옷 벗고 정당에 들어와 논쟁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병계 의원도 “윤석열의 정의

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자신의 질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與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 명분 없다” 재확인

김태년 “김봉현 추가 폭로, 공수처 출범 필요성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회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법안 발의에 대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야당의 특검법 발의는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시간 끌기용 주장”이라며 “수사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검찰 비리나 편파 수사 같은 부분은 상설 특검인 공

수처로 넘기도록 협조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특검을 하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게 했는데, 그것 이전에 특검하자는 건 또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의 추가 폭로 내용을 소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김봉현 씨 폭로가 사실이라면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일부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기획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이 공수처법 시행(7월 15일) 100일인 점을 거론하며 야당

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압박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에서 공수처 출범 지연에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이 추천하지 않는다면 즉각 법안 소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법사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도 잇따랐다.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총장이 공정하고 의혹 없이 수사 지휘를 잘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발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예측 불허 콘텐츠 산업, 꾸준한 지원 필요”

콘텐츠 산업을 위한 전문 정책금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콘텐츠 산업을 지원할 정책금융의 부족으로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25조 4천억원, 수출액은 103억 9천만 달러, 우리돈으로 12조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규모인 대부분의 콘텐츠 기업은 매출이 없는 창업



초기나 프로젝트 기획·제작 단계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일반 제조기업의 보증심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는 행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게 자금의 현실이다.

이병훈 의원은 “어느 시기에, 어떤 콘텐츠가 성공의 싹을 틔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밀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다는 심정으로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수협, 직장어린이집 설치 법정 의무 안지켜”

수협중앙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역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어린이집 설치 예산 수십억 원을 전용해 직원용 카페를 설치해 눈총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수협중앙회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2018년에는 89명, 2019년에는 124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협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로 ‘수요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상시 근로자가 640여 명



(상시 여성 근로자수 150여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수협도 지난 2019년 38억 원, 2020년 38억 원, 2021년 38억 원의 직장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론 어린이집 설치 예산 30억 원을 전용해 17층에 있던 직원 전용 식당을 지하로 이전하면서 커피숍까지 함께 설치했다.

이개호 “수협, 수산업 위기 극복위해 소비 촉진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생산량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수협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1만4000t으로 2018년보다 약 9.7%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도 36만9000t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수협이 어업인과 수산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비대면 문화에 발맞춘 ‘밀키트(meal kit) 상품’ 등 간편식 시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학교급 단계 급식에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미래 수산업 기반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수협은행, 낮은 명칭 사용료 개정 나서야”

수협은행이 수협설립 목적에 맞게 어업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공적자금상환에 따른 서투른 합의로 인해 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가 적게 산정되며 예보와의 합의서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2일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실한 신용사업에 1조5000억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데 이어 2016년 수협은행의 설립과 자본적정성유지를 위해 중앙회가 1조원을 출자했지만, 수협은행



은 중앙회에 1조 5000억원의 빚을 남겨두고 은행 출범 3년만에 2019년 기준 이익잉여금 6000억을 달성하고, 은행직원 3명 중 1명이 억대연봉자가 됐다”고 밝혔다. 대출규모도 2010년 12조에서 2019년 28조5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그 사이 대출건수의 8.2%를 차지했던 어업인대출은 오히려 2019년 4.6%로 반토막났다. /오광록 기자 kroh@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공장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리
토지 : 8503.4㎡(2572.3평) 건물 : 4234.9㎡(1281.1평)
감정가 : 4,290,595,500원 **최저가 : 1,922,187,000원(45%) 유찰3회**

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정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2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4225.9㎡(127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2,859,822,000원(56%) 유찰2회**

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605
토지 : 2058.5㎡(622.7평) 건물 : 1592.8㎡(481.8평)
감정가 : 1,730,846,220원 **최저가 : 1,211,592,000원(70%) 유찰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